

차례

인사말

- 박홍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3대 신임이사장) 02

소식지 발간 10주년 특집 기고

- '날으는 홍범도 장군' 회보 발간 10주년에 부쳐 (황원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고문) 03

행사

- 홍범도 장군 순국 81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식 05

카자흐스탄 방문 특집

- 방문 개요 06
- 우원식 국회의장, 국립 크즐오르다대학교 강연 07
- 늘 내 맘속에 계신 홍범도 장군님 · 고려인 동포들! (김대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전 카자흐스탄 대사) 12
- 우리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땅, 카자흐스탄 (김기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14

2024 기획 특집 - 국군의 정통성과 육사의 정체성(2)

- 홍범도 장군 홍상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 16

2023/2024 특별기획

-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6) (반병률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20

회원 기고

- 반병률 교수 '홍범도를 위한 실증적 변명' 특강 후기 (김경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편집위원/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 24

고려인 동포 소식

- 대한고려인협회 소개 및 인사말 (정영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대한고려인협회 회장) 27
- 역사캠프 후기 (대한고려인협회 교육·문화·스포츠위원회) 29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31

회원동정

39



인사말

역사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박 홍 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8월 기념사업회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발간 10주년을 맞이한 『날으는 홍범도 장군』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아닌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한 우리 군의 정통성과 연속성은 그동안 누구도 부정할 적 없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던 박근혜 정부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문제 삼지 않았던 독립운동 역사를 윤석열 정부가 훼손하고 모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과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섰다 온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육사 내 후미진 공원으로 흉상을 옮기겠다는 꾀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진 곳에 유폐시켜 독립영웅들의 역사와 명예, 그리고 숭고한 정신을 국군으로부터 분리하고 배제시키려는 반헌법적 수작입니다.

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과 우리 군의 뿌리이자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했습니다. 흉상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하고, 광복회·독립운동단체연합과 기자회견을 열어 흉상을 단 한치도 움직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우리 군의 근간을 정하는 국군조직법에 '독립운동 역사 계승'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군의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뿌리 뽑고, 해괴한 역사는 쟁을 끝내기 위함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져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향한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이 담긴 묘비 일부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70여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묘비를 국립대전현충원 내 묘소 앞에 놓고, 순국 81기를 뜻깊게 추모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자유독립을 위하여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한 투쟁에 헌신한 조선 빨찌산 대장 홍범도의 일흔(이름)은 천추만대에 길이길이 전하여지리라”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묘비 뒷부분에 쓰여진 문구입니다. 新친일세력이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려 들수록 장군의 이름은 더욱 깊이 새겨지고, 장군을 향한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앞으로도 역사전쟁 선봉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역사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식지 발간 10주년 특집 기고

‘날으는 홍범도 장군’ 회보 발간 10주년에 부쳐

회보를 통해 장군의 업적 선양,
유해 봉환과 국군의 역사를 중점 부각



황 원 섭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고문)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회보인 『날으는 홍범도 장군』은 2014년 6월 1일부터 계간으로 발간하여, 금년 6월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했다.

창간에서부터 2018년까지 편집 실무를 담당했던 임원으로, 느낀 바 감회의 일단을 피력하게 되어 감개가 새롭다.

창간호에서 이종찬 이사장은 ‘날으는 홍범도 장군’이란 제호로 회보를 창간한다고 말하고, 이 회보에서는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사상을 선양하고, 분단된 조국의 완전한 광복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술하고, 회원 간에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필자가 5년 동안 회보를 편집하면서 가장 관심을 두었던 주제는 홍범도 장군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고,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는 문제와 국군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었다. 첫째로, 장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에

학술발표회 주제를 “청산리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의 역할”로 하여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이 “청산리 전투의 주역은 홍범도 장군이였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동안 청산리 대첩의 실상이 왜곡된 것은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범석의 자서전 “우동불”에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하여 “홍범도는 청산리 전투에서 도망치다가 떼 주검을 당했다”고 날조했고, 1983년 발행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청산리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6.25 전쟁을 계기로 극단적인 반공주의가 작용하여 홍범도는 러시아 훈공에 참여했고,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행적을 문제 삼아 철저하게 외면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념대립이 완화되면서 신용하(이화여대 명예교수),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창욱(연변대 교수) 등 학자들이 왜곡된 부분을 밝혀내고, 당시의 전황과

일제의 정보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청산리 전투의 주역은 홍범도 장군이라고 결론지었다.

두 번째,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은 순국 70주기 카자흐스탄 현지 추모행사를 준비하면서 2012년 보훈처에 건의하고, 2013년 현지 추모행사 후 결과보고를 통해 다시 강조했다. 회보가 창간된 후에는 유해봉환과 현지 묘지 관리 방안을 여러 차례 보도하고, 필자가 2014년 10월 24일 한겨레신문에 시론으로 투고했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서둘러야"를 회보에 전제했었다.

2018년 8월, 우원식 이사장으로 바뀌면서 업무인계의 제1호가 유해 봉환이었다. 우 이사장님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고 2019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정상회담에 특별수행 원으로 동행하여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 유해봉환이 실현 되었다. 그동안의 경위는 회보에서 속보로 계속 보도하였다.

셋째, 필자가 중요시했던 과제는 국군의 정통성과 역사를 복원하는 문제였다. 2011년 신흥무관학교 개교 100주년 행사를 주관하면서, 국군의 역사를 해방 이후 미군정에서 주도한 군사영어학교와 조선경비대에서 시작한 것으로 정리된 국방부 홈페이지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창군의 역사는 강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주체적으로 창설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 김일성도 1948년 창설된 소련의 괴뢰군이 아니라, 1932년 4월 25일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서 시작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부터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따라 독립군과 광복 군을 계승하여 국군을 창설했다는 사실을 언론기관 투고와 TV토론, 강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했었다. 우리 국군은 미국의 괴뢰군이나 일본군의 후예가 아니다. 회보 창간 후에는 회보를 통하여 국군의 정통성과 역사를 복원해야 된다고 보도하였다. 창간하던 해, 필자는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명의로 한민구 국방부장군에게 헌법에 따라 우리 국군은 의병,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했다는 내용으로 복원 하라고 촉구하고, 그 사실을 2014년 9월 회보 제2호에 소개 했다.

2017년 6월 홍범도합 승조원 특강에서 "국군의 뿌리를

제대로 복원하자"는 주제로 강의했다. 2018년 3월, 회보 16호 에는 임원 투고를 통하여 "3월 1일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등 독립전쟁 영웅들의 홍상을 육사에 건립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국군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역사 인식의 크게 전환되었으며, 가치관이 발전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하였다. 2023년 육사 홍상 이전 문제가 제기되어 아직도 현안으로 되어있으나, 국군의 역사와 직결되어 이전은 절대 불가하며, 현 위치를 고수해야 할 것이다.

'날은 홍범도 장군'은 우리 기념사업회를 대변하는 얼굴이며, 회원들은 물론 독립운동단체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1895 - 1943

날은 홍범도장군

사단법인 여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10-0351 서울특별시 용문구 용문대로 150-1 (11715 고봉) 남한산 이대출판 편집인 홍상익
전화: 02-952-9589 팩스: 02-952-9521 http://www.hongbeomdo.org

장인호
여름
2024. 6. 1



봉오동전투 전승 94주년 기념국민대회

0일 시: 2024. 6. 7(토) 오전 11시
0장 소: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0주 회: (사)여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0후 회: 국가보훈처 광복회 제향단인회 남양주제향회

0기 내식
0개 념 사: 이광진 이사장
0개 사: 국가보훈처장
0주 사: 광복회장 제향단인회
0장 연: 장세훈/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구 제: 봉오동전투와 서간도 등로

홍범도 장군 순국 81주기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식

우리의 원수인 왜놈들과 왜놈의 개들이
조선놈들도 살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홍범도 장군 어록 중에서 적목북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다. 여전히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왜놈의 개들'이 작년 8월 육사 내 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홍상 철거를 시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싶어 발악을 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을 속여 홍상을 육사 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곳으로 이동, 육사생도와 방문자들의 눈과 마음에서 멀리하여 '존치'하겠다는 꿈을 내놓고 있다.

2024년 10월 25일, 우리는 홍범도 장군 순국 81주기와 청산리전투 전승 104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립대전 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 앞에 모여 다시 손피켓을 들었다. '홍범도 장군 홍상 1cm도 못 옮긴다!' '꿈수존치 결사반대' 어쩌다가 우리는 광복 이후에도 독립전쟁을 계속하게 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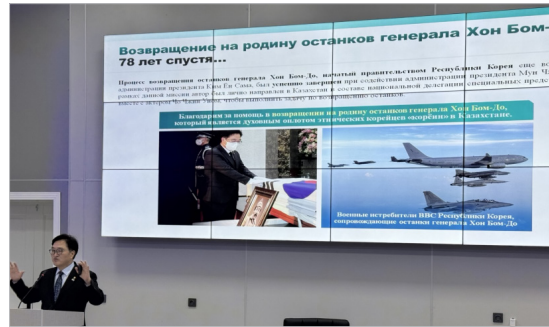


방문 개요

우리 기념사업회는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이후 카자흐스탄과의 지속적인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작년에 크즐오르다 국립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후 의장으로서 첫 방문으로, 기념사업회 이사진들과 10월 10~11일 크즐오르다와 알마티를 방문 하였다.

크즐오르다에서는 주지사 미팅을 하고 크즐오르다 국립대학교 총장을 예방하여 한국 국가 지원금(ODA)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의 현실적 성과 도출 방안을 확인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홍범도 장군과 카자흐스탄의 미래'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다.



홍범도장군 공원에서는 참배를 하고 전시관을 둘러 향후 전시 계획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크즐오르다에서는 고려인 동포와, 그리고 알마티에서는 한인 및 고려인 동포와 만찬을 하여, 고려인 동포의 비자 문제와 한국에서의 노동권·인권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 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고려인 동포 원로인 김례프 선생께서 소장하고 있던 홍범도 장군 묘비명을 기증하여 친일 세력이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 홍범도 장군의 염려의 뜻을 읽고 역사전쟁에서 반드시 친일사관을 없애고 민족 자부심이 충만한 역사를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홍범도 장군과 카자흐스탄의 미래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대 이사장/대한민국 국회의장)

#0 - 인사말

○ 크즐오르다 대학 학생 여러분과 고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우원식입니다.

- 작년 가을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 크즐오르다를 방문한 지 꼭 1년여 만에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다시 카자흐스탄을 찾게 되었습니다.

○ 3년 전 대한민국 광복절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이곳 크즐오르다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시러 오면서부터 제가 카자흐스탄과 인연을 맺게 된 지도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9년 계봉우 지사와 황운정 지사에 이어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협조해 주신 카자흐스탄 국민과 고려인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유해봉환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순방일정으로 카자흐스탄을 오게 된 것도 그 오랜 인연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카자흐스탄은 제2의 모국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 유해봉환에 애써준 고려인 동포 여러분과 카자흐스탄 국민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양국간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 - 유해봉환 이야기

○ 지난 2021년 광복절, 홍범도 장군께서 서거하신 지 78년 만에 고국으로 귀국하던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 대한민국 국군 후배들이 공군 전투기 여섯 대로 태극기를 두르신 장군을 엄호하며 대한민국 영공을 진입하던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 취임 후 저는 국회의원 집무실에 홍범도 장군 부조상을 걸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저녁으로 장군과 눈을 맞추면서 3년 전,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오던 날의 감격과 다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 유해봉환 시도는 사실 오래전 1992년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수교와 함께 추진해 오던 일입니다.

- 그렇지만, 1937년 강제이주 후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권익 수호와 신장에 적극 기여해 고려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구심점이 되어 큰 존경을 받으신 장군 유해를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배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 카자흐스탄 고려인 역사와 홍범도 장군

- 본격적인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가 왜 그토록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과 고려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 장군의 삶은 중앙아시아로 옮겨져 간 우리 고려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약 50만 명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1937년 겨울, 연해주에서 6,000km 떨어진 낯선 곳으로 강제이주를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 당시 스탈린은 일본과의 전쟁을 대비해, 생김새가 비슷한 우리 동포들이 일본의 간첩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강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저항했던 우리 독립운동가 2,500명은 처형하고 남은 동포들을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태워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3 고려인 김한 선생과 그 후손, 우원식 국회의장

- 저의 외조부는 일제와 맞선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입니다. 임시정부 법무부 비서실장을 역임하셨고 의열단 단원으로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연해주에서 활동하셨습니다.
- 김한 선생께서는 스탈린의 강제이주에 저항했고 처형당하셨습니다.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곳곳에 옮겨져 정말 척박한 곳에서 땅을 일구며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 그 때문에 저는 고려인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고려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하며 홍범도 장군이 이곳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갖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 저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고려인들의 이야기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와 완전히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져야 합니다.

- 그런 마음으로 유해봉환을 추진하고 지금껏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4 고려극장 - '날으는 홍범도 장군'

- 매년 카자흐스탄에 올 때마다 느끼지만, 고려인들은 강제이주의 아픔 속에서도 그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보여주며 많은 후손들이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 그중 하나가 크즐오르다에 있다가 알마티로 이전한 카자흐스탄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입니다. 긴 세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굽히지 않은 기개를 품은 한민족의 상징이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도 장군은 말년에, 고려극장에서 경비를 하셨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비록 연세는 드셨지만, 그 옛날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이끈 장군을 단번에 알아봤고, 지금도 극장의 주요 작품인 '날으는 홍범도 장군'이라는 연극을 만들어 1942년부터 공연중입니다.
- 연극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나라가 식민 치하에 있을 때 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몸 바쳐 싸운 홍범도 장군의 독립 투쟁 역사와 그의 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 지금부터는 연극의 기개를 다 담아내지 못하겠지만 짧게라도 홍범도 장군의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5 홍범도 장군의 삶

- 홍 장군은 평안도 평양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님이, 9살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머슴을 살다가 배가 고파 군대에서 나팔수로도 살았습니다.
- 이후에 제지공장 노동자, 식객승으로 살기도 하고 나중에는 백두산에 호랑이 잡는 포수로 정말 어렵게 살면서 고려극장 수위로 일생을 마칠때까지 나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 홍 장군이 27살 되던 해인 1895년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사변 보름 후에 의병

운동에 나선 이래 이곳으로 강제이주 전까지 일본군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 홍범도 장군은 포수 시절부터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얼마나 총을 잘 쏘았으면 사람 머리위에 병을 얹어두고 병을 맞추고 의병투쟁 과정에서는 동지들은 미리 후퇴시켜놓고 혼자 매복한 상태로 수십 명의 일본군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 그래서 당시에 일본군이 두려워했던 '날으는 홍범도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던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홍장군의 부인은 일본의 회유와 고문 끝에 옥사하고 맙니다. 큰 아들마저 의병으로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독립운동전선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 이후 홍범도 장군은 개마고원과 간도를 거쳐 독립지사들의 꿈과 피땀이 서려 있는 항일 운동의 주요 거점 지역인 연해주에 터를 잡고 독립군을 양성했습니다.

#6 봉오동, 청산리 대첩의 주역 -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 그러던 중 1919년 3.1운동이 일어납니다. 무단 통치기에 농민들조차 곡괭이를 들고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해주 우스리스크에서 대한국민의회가 결성되었고 홍범도 장군은 이동휘와 함께 400명 규모의 대한독립군을 창설하고 사령관으로 선출됩니다.
- 1919년 8월 하순, 대한독립군은 드디어 모든 독립운동가의 소원이었던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 1920년 6월 7일 두만강을 건너 국내에 진군해 함경남도 해산진에 일본군 수비대를 섬멸하고 승리를 이룹니다. 이를 한국에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봉오동 전투'라 부릅니다. 일본군 1개 대대를 대패시켜 '독립전쟁 제1차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 그해 10월에는 21일부터 7일간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함께 간도를 침략한 일본군을 대파,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 *봉오동 전투 전과 : 일본군 사망 157명 / 부상 300명
- 봉오동, 청산리전투는 자랑스러운 독립전쟁 승전의 역사입니다. 일제에 고통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나라 잃은 굴종과 설움을 씻게 하고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높이고

만주와 러시아 지역의 무장항쟁을 활발히 펼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7 홍범도장군 삶의 의미 - 어려운 삶 속에서도 대한 독립투쟁의 선봉에 선 대장군

- 이처럼 연극으로도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존경받고 있는 '날으는 홍범도 장군'은 항상 위험할 때 앞서서 나가 먼저 싸우고, 숭선수범했던, 우리 무장투쟁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 하지만 홍범도 장군 개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아 출신의 가난한 평민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움으로 청춘과 가족 모두를 독립전쟁의 제물로 바쳤고 말년에는 이억만리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도 당하셔서 인생의 말년을 수위로, 방앗간의 노동자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은 러시아 협동농장시절 연해주 각지의 한인동포와 카자흐스탄 고려동포사회에서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가장 큰 어른이시자 가장 든든한 이웃이셨습니다.
-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많이 잊혀져 있었습니다.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셨고 장군의 업적을 기억할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그렇게 아무런 나라의 혜택을 못 보시고 잊혀져 있던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장군의 피어린 투쟁에 힘입어 선진국이 된 조국의 품에 국가 최고의 예우로 안기는 장면은 "그래 이게 나라다!"라는 큰 울림으로 모든 국민의 가슴속에 각인된 것입니다.
- 그렇기에 우리는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곳 고려인 사회를 다시 이어주게 한 홍범도 장군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첫 물꼬를 터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8 유해봉환사업 - 크즐오르다 대학교와의 교류프로그램

- 그 감사에 대한 의미를 담아, 또 두 나라의 우호증진과 홍범도 장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저와 대한민국 정부는 홍범도장군 유해 봉환 후속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실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PPT에 보시는 것처럼 고려극장 개선사업, 크즐오르다 지능정보

대학신설, 홍범도기념묘역 조성, 전라북도-크즐오르다주 농업기술 교류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9 유해봉환사업 - 고려극장 무대개선사업

○ 앞서 말씀드린 알마티 고려극장의 음향, 조명, 무대, 객석, 시스템지원사업을 통해 무대시설을 총 94만불을 들여 교체 지원했습니다.

- 대한민국 외교부는 소규모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총 94만불 규모의 극장리노베이션 사업을 진행했고 로비부터 무대와 좌석, 조명시설까지 최신식으로 교체했습니다.

#10 유해봉환사업 - 전라북도 스마트팜 교류사업

○ 또 전라북도와 크즐오르다주는 지난해 5월, 농업 기술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카자흐스탄의 바람’이라는 경제협력포럼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우호도시 교류를 체결 하려고 진행중이며 이외에 경제포럼, 문화포럼, 미술 전시회와 고려인-아시아 전통문화 보급 사업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습니다.

#11 유해봉환사업 - 홍범도 기념묘역조성

○ 작년에 제가 직접 개원식에 참석했지만, 기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있던 자리에 기념묘역을 대한민국 보훈부의 지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총 7억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 323평 부지에 기념공원에는 독립전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봉오동 전투의 지세를 형상화한 참배 공간을 비롯해 홍범도 장군과 계봉우 지사의 삶과 독립운동 공적을 전시하는 전시관, 조경과 차양 쉼터가 있는 휴게공간이 조성 됩니다.

#12 유해봉환사업 - 크즐오르다대학교 기능정보대학 신설

○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곳 크즐오르다대학교와 한국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3년 1월부터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교육부와 서울과기대는 총 28억을 지원해 “크즐오르다주립대학 지능정보대학 신설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보안 학과를 확대 개편해 대학을 신설하고 향후 7년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온 21세기형 융복합 인재 양성의 요람을 만들고자 합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저의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로 이곳 크즐오르다 대학교와 학생 및 교수교환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 궁극적으로는 이 과를 확대개편해 ‘홍범도 컬리지’로 명명해 더 활발한 교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 관련 사업을 주도한 공로로 저는 지난해 11월 크즐오르다대 명예교수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13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의 미래발전-1

- 더 나아가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 수교를 해서 고려인사회와 홍범도장군이라는 여러 인연을 바탕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우호 국가입니다. 2009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수교 이래 17차례나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 저 역시 이번이 5번째 방문이기도 합니다.
- 홍범도 장군과 유해봉환을 계기로 양국 간의 관계는 최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 작년에는 코샤노프 하원의장이 우리나라의 한-중앙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국내에 방문하셨고, 또 금년 6월에는 우리 정상이 국민방문했습니다.
- 특히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입니다.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22년도에는 역대 최대치인 65.2억불을 달성했습니다.
-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아시아의 최대 자원 부국으로 제조업과 디지털 분야 육성까지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토카예프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이 목표로 하는 세계30대 선진국에 2050년까지 입성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14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양국간의 미래발전 -2

-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에너지, 인프라, 공급망 공급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며 과학기술 ICT, 환경, 공공 행정과 인적 교류분야, 그리고 최대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기아자동차 공장도 건설을 추진 중이고 이미 우리 현대·기아자동차 현지 협력사가 운영하는 3개 자동차공장에서 연간 7.2만대의 자동차를 조립생산 중이기도 합니다.
- 이외에도 알마티 순환도로,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이런 인프라 사업에도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 또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의 핵심광물과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올해 6월, 양국의 정상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리튬, 크롬, 희토류 금속 등 중요 자원을 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 한국은 우수한 광물 자원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카자흐스탄과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양국의 경제발전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 마무리

- 오늘 저의 강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 한국 국민들은 카자흐스탄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80여 년 전 극동에서 이주해 온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 준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 따뜻한 포용적인 마음을 한국 국민들은 매우 고맙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근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장군 흉상 철거 문제로 카자흐스탄과 고려인 동포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걸로 압니다.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 한민족 역사의 자부심인 독립 투사들의 항일 운동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여러분과 함께 홍범도장군의 역사와 자랑스러운 고려인의 삶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양국간의 교류가 작은 밑알이 되어 고려인의 삶과 독립운동가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내 맘속에 계신 홍범도 장군님·고려인 동포들!



김대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전 카자흐스탄 대사)

지난 10월 9일, 세종대왕님께 깊은 감사의 맘을 품고 카자흐스탄을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사무실 일정에 매인 내게 카자흐스탄을 방문할 수 있는 금쪽같은 휴일을 선사해주었기 때문이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님의 일원으로 장군님께서 계셨던 크즐오르다를 방문하였다.

장군님의 유해 국내 봉환 후 새로 조성된 묘역과 홍범도 장군님과 계봉우 지사님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관의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감회가 새롭고 새로웠다.

2017년 4월 카자흐스탄에 대사로 부임하여 얼마 후 장군님 묘역 방문을 시작으로, 알마티 소재 고려인협회, 고려극장, 고려일보, 독립유공자 후손협회 방문과 면담, 크즐오르다의 계봉우 선생, 카라간다의 김경천 장군과 아스타나의 황운정 지사의 유족 면담, 쉼켄트 최봉설 지사 묘지 방문 등, 카자흐스탄과인연을 가진 독립유공자들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하나 하나 찾아 다녔던 시절의 기억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홍범도 장군 유해를 조국에 모시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한 계기는 처음 묘역을 방문했을 때 받은

인상때문이었다. 그간 당시 국가보훈처의 지원으로 묘역이 조성되어 크즐오르다 고려인 협회측에서 관리해주고 있었지만, 홍장군님께서 조국독립을 위해 바치신 희생과 공헌에 비해서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묘역에 들어서자, 마침 크즐오르다 광활한 벌판을 스치는 황량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나를 일깨웠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의 지위를 자랑하는 마당에, 홍장군님의 열사 봉공, 살신성인의 공덕이 그 혜택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세대의 기억으로부터 방치되고 망실되어 있구나... 죄책감과 반성이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런 인상과 판단하에, 부임 초기부터 홍장군 유해의 국내 봉환을 염두에 두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고려인 동포들과의 친분과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 사회의 중심지인 알마티는 물론, 홍범도 장군과 계봉우 지사의 묘역이 있는 크즐오르다를 비롯하여 카자흐스탄 각 주의 고려인협회 대표들을 만나기 위한 방문을 이어 나갔다.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 국내 봉환(실제는 19.4.22)에 대한 윤곽이 잡힐 무렵인 2018년

부터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계획을 우리 정부에 공식 건의하였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카자흐스탄 정부와 교섭을 개시하였다. 그 내용은 나라간 협상의 영역이므로 아직은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독립유공자 후손협회와 고려인협회 측의 동의를 얻고, 카자흐 정부를 설득하는 협상을 2020년 초까지 마무리하게 되었다.

실제로 홍장군님의 유해는 2021년 8월 15일 제76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국내로 봉환되었다. 원래는 2020년 3월 31일 귀환하는 것으로 양국간 합의되었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유해를 모셔 와, 우리 대통령께 인계해주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아뿔싸! 당시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3월 초부터 한국에 급격하게 번졌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문은 1년 연기되고 말았다. 나로선 그해 6월 말 퇴직이었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홍장군의 유해 봉환을 외교관 생활의 피날레로 장식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절 인연은 이를 허락지 않았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속이 쓰렸다. 그러나 이내 맘을 추수할 수 있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두고 생사를 다투는 마당에 내 개인의 성취에 패념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에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간의 약속인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니, 장군님의 유해는 곧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생각이 닿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크즐오르다와 알마티를 방문하여, 홍장군님의 유해 봉환에 적극 협조해주었던 고려인 동포 사회의 주역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카자흐 식으로, 두 팔을 벌려 한껏 껴안고 그분들과의 우의와 감사의 정을 나누었다.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문은 국내에서의 홍범도 홍상 이전 논란으로 크게 낙담하고 분노했던 고려인 동포들을 달래주는 계기여서 뜻이 깊었다. 나도 그 논란에 분개하여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적이 있다. 협상을 도와주었던 우리 고려인 동포들과 카자흐 정부에 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맘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우 의장님의 방문을 통해 그분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기에, 내게도 큰 안도가 되었다.

나는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다. 많은 사람들의 역할과 기여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하셨다고 단언한다.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한-카자흐스탄의원 친선협회 회장,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장으로서, 카자흐 정부와 고려인 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의원 외교활동과 그때그때마다의 우리 정부의 정확한 노력을 이끌어주셨기 때문이다. 우 의장님의 역할과 공헌은 알마티 천산처럼 우뚝하다.

글을 맺으며, 특히 카자흐스탄의 독립유공자 후손협회와 고려인 동포사회의 대표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사의와 경의를 표한다. 그분들은 홍장군님의 유해봉환에 있어 진정한 공훈자들이다. 우리는 이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길이길이 기억하자.



우리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땅, 카자흐스탄



김기수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앙아시아 외교 순방 일정 중에 첫 해외 순방지로 카자흐스탄을 방문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카자흐스탄을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들과 함께 방문 하였다.

10월 8일 늦은 밤 알마티에 도착하여 숙소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조식 후 아침 산보 겸 숙소 주변을 걷다가 뜻하지 않게 소련 혁명가 거리를 구경하였는데 그들이 거주했던 공동 연립주택들이 이어져 있었고 혁명 지도자가 실제 거주했던 주택에는 그들을 소개하는 동판이 외벽에 박혀 있었다. 양쪽으로 늘어선 주택가 사이 산책길 초입에는 젊은 혁명가 전신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벤치들이 있고 벤치들 바로 옆에는 그 젊은 혁명가의 인상적인 어록들이 담긴 조그마한 입동판이 함께 있어서 사진을 찍고 번역기를 돌려가며 젊은 혁명가의 시대상을 생각하면서 공원 거리를 걸었다.

혁명가 거리를 돌아본 후 방문 일행은 홍범도장군기념

사업회 카자흐스탄 지부장인 박드미트리의 안내와 열정적인 설명을 들어가며 알마티시의 침불락, 28공원, 젠코바성당, 코크바자르를 방문하였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관광지는 텐산 이었다.

텐산 산맥은 동서 주향의 산지로 길이가 2,000km에 달하며 규모가 워낙 크고 빼어나서 자연환경과 지질학적 가치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 산맥 동쪽은 2013년 중국이 세계유산에 등재했고 서쪽은 2016년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이 공동 등재 하였다.

텐산 산맥은 서쪽인 카자흐스탄 쪽에서 볼 때는 장대한 빙하 지형과 산을 뒤덮은 만년설, 산의 산록부의 목초지들 모습이 유럽 알프스 산맥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해서 동양의 알프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규모가 알프스 산맥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아서 산맥 주변 지역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가 발달해 있다.

10월 10일은 알마티 공항에서 1시간 40분 비행하여 크즐오르다 공항으로 이동 하였는데 크즐오르다는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지역으로서 한때 카자흐스탄의 수도였고 강제 이주 당시 원당사범 대학(현 크즐오르다 국립대학), 고려극장, 신문사 등이 이전해 왔던 곳이라고 한다.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으로 차량 이동 중에 홍범도 장군께서 이주 후 정착한 동네를 잠시 둘러 보았고 기념공원 도착 후 우원식 국회의장, 크즐오르다 시장 등 방문단과 함께 우리 일행은 참배 및 헌화를 지켜보고 함께 고개 숙여 묵념을 올렸다. 이곳 기념관은 홍범도 장군 유해가 지난 2021년 광복절에 국내로 봉환되기까지 약 78년간 안장돼 있던 자리라고 한다.

홍범도 장군 참배와 헌화를 마친 후 크즐오르다 국립대학으로 옮겨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재학생, 교수 대상 특별 강연을 하셨는데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이어 크즐오르다 총장님의 답사 말미에 홍범도 장군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크즐오르다대학의 영웅이라는 극찬을 듣고서 우원식 전 이사장님이 그 동안 해온 노고가 고스란히 느껴졌고 고려인 동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오셨구나 생각하니 매우 감동스러웠다.

저녁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크즐오르다에서 연 고려인 동포들과 간담회 및 만찬회에서 고려인 원로 김레프 씨가 1993년부터 보관해 온 홍 장군 묘비 일부를 기증 받았는데 매우 감격스러운 장면 이었다. 묘비에는 ‘저명한 조선 빨치산 대장 홍범도 묘’라는 내용의 ‘묘비명(墓碑銘)’이 새겨져 있다. 홍 장군의 출생과 별세일자도 적혀 있다.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10월 크즐오르다에서 사망한 홍 장군의 유해는 임시 묘를 거쳐 종전 후 크즐오르다 중앙 공동묘지에 이장된 뒤 같은 묘지내에 재이장 된 바 있다.

크즐오르다 일정을 마치고 10월 11일 알마티로 이동한 방문단은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해 부채춤, 고려 아리랑, 소고춤 등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선보여 달라”고 격려하였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

하여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당시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온 고려인 사회대표 공연 단체이다.

공연을 마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알마티 고려인 동포와 한인대표 간담회와 만찬회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가고 구실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요청하며 “재외동포의 헌신과 노력이 더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뒷받침하겠다”는 다짐을 하시면서 카자흐스탄의 일정을 마쳤다.

2일간 더 체류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방문 일행은 10월 12일 알마티 시에서 동쪽으로 200km 지점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의 그랜드캐년이라 불리는 차른(샤린)캐년을 구경하고 10월 13일 마지막 날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관, 차없는 거리 등 각자 개인별 취향에 맞는 알마티 시내 여행을 끝으로 카자흐스탄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기회가 닿으면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회원 여러분도 카자흐스탄을 꼭 한 번 가보시라고 추천 드린다.

카자흐스탄 방문한 이후 홍범도 장군의 정신을 잘 계승하기 위한 교육사업, 기념사업, 콘텐츠 제작, 국제 교류 등 다양하게 접근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활동들이 더욱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고려인 동포 및 해외 동포와 서로 실질적 도움이 될 있는 교류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한국에서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려인 주민 정착 지원 각종 활동, 의사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의료지원, 비자 문제 해결 등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정 방안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국내외 관련 단체와 모든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4 기획 특집 - 국군의 정통성과 육사의 정체성(2)

2024년에는 우리 국군의 정통성과 육사의 정체성을 짚어보는 기획특집을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홍범도 장군 홍상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



박창식 전 국방홍보원장

독립전쟁 선각자들 기리는 공군과 해군한테 배워라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홍상 문제가 거듭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육사가 교내 충무관 앞에 있던 5인 독립전쟁 지도자 홍상을 교내 다른 곳에 공원을 만들어 옮기겠다고 한다. 충무관은 종합 강의동으로 생도들이 학과 수업을 위해 매일 출입하는 곳이다. 자랑스러운 독립전쟁 역사를 육사 생도들이 되새기기 아주 좋은 곳에 홍상이 자리 잡고 있다. 육사가 홍상을 지금 위치에 그대로 두고 독립전쟁 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하면 좋겠다.

지난 호에는 육군과 육사가 독립전쟁 역사를 잘못 기록하는 문제를 다뤘다. 우리 국군이 모두 잘못하는 게 아니다. 공군과 해군은 항일 독립전쟁 역사를 담당하게 현대 조직의 기원으로 기록하고 기념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공군과 해군의 역사 기록 상황을 다룬다.

“도교 왕궁을 폭격하겠다” 월로우스 비행학교 중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부근에 국립항공박물관이 있다. 우리나라 항공 선각자들이 항공독립운동을 통해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고 투쟁한 역사를 이곳에 가면 잘 알 수 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성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 전쟁 전략의 하나로 비행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라서 비행기가 새로운 전투 수단으로 눈길을 끌었다. 작은 전력으로 적을 강하게 타격해야 하는 독립전쟁 특성상 공군력이 더욱 필요하겠다고 선각자들은 생각했다. 노백린 임정 군무총장(국방부 장관)은 “앞으로의 승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에게 있다”(〈독립신문〉 1919년 4월17일치)고 주장했다. 임시정부는 비행기 구매 자금을 마련해보도록 노백린을 미국으로 보냈다.

노백린은 미국에서 한인 청년들이 이미 비행술을 배우고 있음을 알게 된다. 노백린은 임시정부에 보고하고 미국에 임시정부 자체 비행학교를 세우기로 한다. 이때 김종림이라는 34살 청년 사업가가 나섰다. 김종림은 1차 대전 당시 캘리포니아 월로우스에서 군량미 수출용으로 쌀농사를 지어 큰돈을 벌었다. ‘백미 대왕(Rice King)’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 김종림은 비행장 부지 임차와 활주로 건설, 비행기 구매, 학교 운영비를 도맡았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월로우스 비행학교’를 만들어냈다.

월로우스 비행학교는 연습용 비행기 3대를 확보해 ‘조선 항공대’라는 뜻으로 KAC 표지를 그려 넣었다. 학생들은 “도교로 날아가 왕궁을 폭격하겠다”는 각오로 훈련했다. 학교는 1920년 제1회 졸업생 25명을 비롯해 모두 40여명의 비행사를 길러냈다. 여기서 배운 박희성과 이용근은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병 참위(오늘날 소위)로 임명됐다.

미국 서부에 큰 홍수가 들어 한인 농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후원이 끊어졌고 비행학교는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래도 우리 손으로 비행학교를 만들어 공군을 건설하려고 했으니 그 의미는 컸다.

임시정부 요인 안창호도 항공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안창호는 비행기를 구입하고 조종사를 구하려고 미국, 필리핀, 러시아, 중국인들과 교섭을 벌였다. “이는 비행기를 사용하여 국내 민심을 격발하고 장래 국내의 대폭발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안창호는 1920년 1월 일기에 적었다. 월로우스 비행학교가 도교 폭격을 목표로 삼았다면, 안창호는 비행기로 전단을 뿌려 독립운동 소식을 국내에 알리려고 했다.

안타깝지만 자금 사정으로 이 계획을 실행하진 못했다.

그것뿐이 아니다. 임시정부는 중국 항공학교에 조선 청년들을 추천해 비행사 양성 교육을 받도록 했다. 조선 최초 여성 비행사인 권기옥을 포함해 서활보, 최용덕, 장지일, 이영무, 김은제, 이병운 등이 중국 항공학교에서 교육 받았고, 일부는 소련 모스크바 항공학교로 갔다. 권기옥은 중국 공군 조종사로 항일전쟁에 참여했고 광복군에서 활동했으며 해방 뒤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국립항공박물관에 가서 보시라. 미국과 중국, 소련 항공학교에서 교육받고 그 나라 공군에 입대해 항일전쟁에 참여한 항공독립운동가 24명의 인생 내력을 자랑스러운 ‘항공 독립운동’으로 전시하고 있다. 소련 항공학교에 갔다고 해서 색깔을 의심하고 차별한다? 공군과 항공 분야에는 그런 일이 일절 없다.

해방 뒤 항공인들은 미 군정과 협의해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를 만들었다. 최용덕 장군을 비롯한 7명의 항공

경력자가 여기에 참여했고 이 조직이 오늘날 현대 공군으로 발전했다. 7인 주역을 출신과 경력으로 보면 최용덕과 이영무가 중국 공군과 광복군에서 활동했다. 박범집 김정렬 이근석 김영환은 일본 육군 항공대 경력자다. 장덕창은 일본 민간 비행학교에서 배우고 민항기 조종사로 활동했다.

중국군·광복군·일본군 출신 참여하되 정통성은 광복군에

7인 모임 좌장은 최용덕 장군(1898~1969)이었다. 최 장군을 포함해 공군 창군의 염원을 품은 이들 7인은 매주 토요일 김정렬의 서울 돈암동 집에 모였다. 김정렬이 부잣집 장남이라 밥을 넉넉하게 대접하기 좋았다. 최용덕 장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초대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광복군이든 일본군이든 출신과 관계없이 항공 업무를 해본 사람이 공군 조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공군은 다양한 경력자가 참여한 사실은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군이 공군 조직의 기원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오늘날 공군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임시정부가 월로우스 비행학교를 세웠으며 안창호가 비행기 구입을 시도했고, 임시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소련 비행학교에서 우리 청년들이 위탁 교육을 받도록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일제에 맞서 싸운 항공독립운동이 공군의 뿌리임을 정확히 밝히고 있다.

국립항공박물관 옥외 전시장에는 ‘리멤버 월로우스’라는 조형물이 있다. 2020년 월로우스 비행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이 학교가 공군의 효시임을 공군본부 차원에서 공식 선언하려고 조형물을 세웠다.

“일본군 출신 없이 클린 해군 건설했다”

이번에는 해군 이야기다. 방헤린씨라는 여성 예비역 해군 대위가 몇 달 전 일간신문에 “육사의 부끄러운 뿌리 찾기”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다. 그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장교로 근무했다. 전역 뒤 군인권센터 활동가로 일했다.

그는 해사에서 손원일 제독을 중심으로 해군 창설 과정을 자세히 교육하고 기념한다고 소개했다. 해사는 학업과 품행이 우수한 생도에게 손원일상을 수여한다고 했다.

손원일은 누구인가?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다. 본인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일제 경찰에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 해군은 잠수함에 손원일, 안중근, 김좌진, 이범석, 유관순, 홍범도 이름을 붙이고 있다. 해군이 항일 독립전쟁을 계승한다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손원일은 조국이 해방되면 해군을 건설하리라 일찍이 마음 먹었다. 이를 위해 중국 해군에 입대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이라고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상하이 중앙대학 항해과에서 공부했고 졸업 뒤에는 독일 상선에 취업해 함부르크~수에즈 운하~요코하마~블라디보스토크 국제노선을 뛰었다.

1945년 8월 일제가 항복하자 손원일은 중국을 떠나 귀환했다. 당시 남한에서는 일본군, 만주군 출신들이 저마다 군사단체를 만들었고 숫자가 적지만 중국군과 광복군 출신도 모이고 있었다. 1945년 11월 미 군정청에 등록된 군사단체만 3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손원일은 연희전문학교 교장 유억겸을 찾아가 상의했다. “해군 창설에 한 몸 바치려고 한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해 국내에 아는 이가 없고 군대 생활 경험도 없다.” 손원일은 8월 21일 직접 풀통을 들고 서울 거리로 나가 대원 모집 벽보를 붙였다. 같은 날 근처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벽보를 붙이던 정금모를 만나 의기투합한다. 벽보를 보고 모여든 대원들을 중심으로 손원일 등은 해사대 간판을 걸었다. 1945년 11월 11일 이 조직을 해방병단으로 발전시켰고, 여기에 미 군정이 해안경비대 지위를 공식으로 부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해군으로 발전해갔다.

정금모는 진해고등해원양성소 기관과를 졸업하고 한국 여수~일본 하카타 노선 여객선 기관사로 근무했다. 진해고등 해원양성소를 나와 일본 상선 기관사로 일한 한갑수도 참여했다.

해군 창설에는 손원일이나 정금모처럼 서양이나 중국, 일본 상선에 근무했던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등 해운 전문 인력이 주축을 이뤘다. 일본 해군이 조선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일본군 경력자는 있을 수 없었다. 만주군 출신이 좀 있었는데 1949년 해병대를 만들 때 지상군 경력자라고 그쪽으로 썩 보냈다. 육군, 공군과 달리 해군은 역대 참모총장

가운데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 1명도 없게 됐다. 이런 대목을 두고 해군 장교들은 “우리는 클린 해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손원일과 창설 초기 주역들은 해군 문화에서도 근대적 기풍을 세우려고 노력했다. 손원일은 외국 상선 사관과 영국의 해군 문화를 보고 ‘해군은 신사(gentleman)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명예와 신의, 약자 보호를 실천하는 ‘신사 해군’을 강조했다. 신사는 곧 선비다. 선비 사(士) 한자를 열 십(十)과 한 일(一)로 나누면 숫자 11이 나온다. 이런 계산으로 11월 11일을 해방병단 창설일로 택했다.

독립지사 아들 손원일 제독 중심, 일본군 폐습 척결 노력

초대 해군 총참모장 손원일은 장병 실천지침 6개 가운데 ‘군인은 정치담(談)을 (하지) 말고 도별담(道別談)을 폐지하자’를 넣었다. 정치 관여와 출신 지역별 파벌 조성을 막으려고 했다. 해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원적과 본적을 빼도록 했다.

한국전쟁 중에 손원일은 해병대 간부 공정식에게 3가지 지침을 내렸다.

첫째, 장병을 구타하지 말라.(구타는 일본군 잔재다)

둘째, 포로와 부역자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

셋째, 명령 불복종, 도망 장병 등 위법자는 즉결처분하지 말고 가능한 한 군법에 회부해 처리하라.

1950년 10월의 일이다. 해군은 공산군에 협력했다는 사람 400여명을 마산경찰서 부터 인계받았다. 얼마 뒤 경찰이 부역자를 총살하겠다고 넘겨달라고 요구했는데 손원일이 거절했다. 부역자라고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했다. 해군은 이들을 6개월 정도 해군 조함창에서 일을 시키다가 반성하는 사람부터 차례로 석방했다.

한국군에는 억압과 부패라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 폐습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만주군과 일본군 출신이 국방 요직을 차지한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독립군과 광복군 역사를 제대로 계승하면 이런 폐습을 줄였을 텐데. 그나마 해군에서 초창기에 손원일 제독이 군대 문화를 바로잡으려 했음을 기억 해둘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해군본부 홈페이지는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와 조선 시대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을 소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를 소개하고 그 아들 손원일 제독 중심으로 오늘날 해군을 창설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육군본부 홈페이지는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

“해방 후 미 군정 하 1946년 1월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방경비대는 육군으로 개칭되어 국군에 편입되었으며...”. 대한제국 말기 항일 의병에서부터 신흥무관학교 운영, 봉오동

청산리 전투, 독립군과 광복군에 이르는 빛나는 독립전쟁 역사가 있는데도, 이 부분을 육군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육군과 국방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공군과 해군이 독립전쟁 역사를 중시하고 기리는데 육군만 빠질 이유가 없다.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투쟁(6)



반 병 루 (홍범도아카데미 원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

‘대한독립군단’설의 허구성

간도의 독립군단체들이 북만주 밀산에서 총집결하여 ‘대한독립군단’을 형성하고 우수리강을 건너 러시아 연해주 이만으로 넘어갔다는 이른바 ‘대한독립군단’설이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교과서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역사서에서 널리 통용되어온 ‘대한독립군단’ 형성설은 그 사실적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지 오래다. 윤상원 교수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이 ‘대한독립군단’의 존재에 문제를 제기 했고, 필자 역시 이 거창한 신화가 한국독립운동사학계에 정설로 굳어진 된 과정을 분석하여 소개한 바 있다.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항일투사들의 회상과 달리, 채근식의 『무장독립운동비사』(대한민국공보처, 1948, 98~100쪽)에서는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이름으로 병력이 1개 여단(3개 대대, 9중대, 27소대) 3,500명에 달했다고 부풀려진다. 이를 계승하여 애국동지원호회에서 펴낸 『한국독립운동사』(1956, 321쪽)에서는 참여한 독립군 단체가 10여 개 단체로 늘어나게 되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1968년에 간행한 『한국독립운동사』(217~220쪽)를 비롯한 연구서와 논문에서 참여

단체나 규모가 훨씬 늘어나며 정설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집결한 독립군단체의 수, 병력의 규모, 통합군대의 명칭 등이 전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독립군단’설은 독립운동사를 다룬교과서와 일반 역사서는 물론 학술적인 논문에서도 버젓이 서술되고 있고 일반대중들 사이에서도 널리 유포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간도독립군의 밀산(密山) 집결과 ‘대한독립군’으로의 통합

이른바 신화화된 ‘대독립군단설’의 실상은 밝혀졌지만, 여전히 청산리 전투 이후 북만주 밀산에 집결한 독립군의 월경(연해주 이만행)과 무장해제 문제와 관련하여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다.

1921년 9월 11일 자로 ‘대한독립군’ 북만주 통신부 소속의 이종실은 임시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보고서(『알려드리느 글』)에서 간도의 독립군 군대들이 북만주 밀산에 집결하게 된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독립군 병사들이 “열고 굶주림을 면코저 함”이었고, 둘째는 “일본군의 공격으로 흩어진

군대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회(5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산리전투 이후인 11월 중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북로정일군)은 백두산 산울의 안도현 삼인방에서 이청천의 의용대(교성대), 조동식의 광복단과 연합하여 400명(본부와 3개 중대) 병력의 ‘대한의용군’을 조직한 바 있다. 이청천과 함께 서로군정서 교성대를 이끌었던 김승빈에 따르면, 이 대한의용군이 복상하여 북만주 밀산에 먼저 도착해 있던 북로군정서(병력 250명)를 만나 호림현(虎林縣) 도목구(劉木溝)에서 회합을 갖고 통합하였다.

새로운 통합군대의 명칭과 관련하여, 김승빈은 ‘통의부(統義府)’였다고 회상하였지만, 앞서 소개한바 북로군정서 계열의 이종실은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간도 독립군 각단체가 종래 명칭을 버리고 ‘대한독립군’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였다고 보고했다. (“더욱 즐거운 것은 우리에게 보통명사인 대한독립군이라는 한 일흠 아래에 지휘를 받게 됨이외다.”)

그동안 홍범도 부대의 고유 명칭처럼 불렸던 ‘대한독립군’이 새로운 통합군대의 명칭이 된 것이다. 김승빈이 회상한 대로 통합군대를 내부에서는 ‘통의부’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 이에 비하여 ‘대한독립군’이라는 명칭은 연해주 이만으로 건너간 이후 원동공화국측과의 교섭을 염두에 둔 ‘대외적 성격’을 띤 명칭이라고 보여진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의 삼단연합으로 성립한 새로운 통합군대 ‘대한독립군’의 총재는 북로군정서 총재인 서일, 부총재는 대한의용군 총사령인 홍범도, 대대장은 이청천이 맡았다. 그 외의 간부들을 보면, 사령부 사령장 김규식, 부관 박두희, 군사부장 김혁(김오석), 교육부장 김좌진, 부관 김승빈 학도대 대장 이범석 등이었다. 당시 ‘대한독립군’의 병력은 대략 7백명으로 대대급 병력이었다.

홍범도는 1928년에 작성한 『이력서』에서 당시 자신이 “만주 지대를 떠나서 원동 이만으로 700명 되는 군력을 거느리고 왔다”고 썼다. 당시 홍범도가 이끌고 이만으로 넘어온 독립군 병력이 7백여 명이었다는 또 다른 증언이 있다. 앞서 소개한바 서로군정서의 간부 김승빈은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를 본부와 1개 대대(600명)과 학도대(북로군정서 사관 연성소 졸업생 4,50명)이었다고 회상했다.

‘대한독립군’의 월경과 연해주 이만행(行)

원동공화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간섭군이 철수하자 단독으로 주둔하게 된 일본군의 철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불셰비키정권이 1920년 4월 창설하여 일본군 철수 직후인 1922년 11월에 소비에트러시아에 편입하게 되는 과도기적 성격의 완충국(Buffer State)이었다. 이만(현재의 달리너레첸스크)은 일본군-백위파 정권이 점령하고 있는 연해주 남부지역과 원동 공화국이 점령하고 있는 연해주 북부 사이의 중립지대 북단에 위치한 도시였다.

그리하여 간도를 침략한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 러시아로 이동하게 된 간도 독립군 군대 대부분이 연해주 이만으로 월경하게 된 것이다. 간도 독립군 군대 가운데 신민단 군대만이 일본군과 백위파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연해주 남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인빨치산 부대에 합류하였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에 앞서 최진동, 허근의 대한총군부가 1921년 1월 말에, 그리고 안무의 국민군(국민회 군대)가 2월 초순에 자유시로 도착하였다. 총군부는 청산리전투 이전에 북간도를 떠난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와 허근의 의군부 군대가 중러국경 지대에서 통합하여 결성한 군대였다. 국민회계 열린 안무의 대한국민군은 1920년 8월 10일 국민회의 독자적 군대로 창립된 군대로 역시 청산리전투 이전에 북간도를 떠나 중러국경을 넘었다.

홍범도, 이청천 등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하바롭스크에 본부를 둔 원동공화국 인민혁명군 제2군 사령부로부터 이만에 파견되어 있던 ‘조선독립군 영접부원’ 박광서(박미하일)의 주선에 의하여 자유시로 수송되었다. 이에 앞서 중러국경을 넘은 최진동, 허근의 총군부와 안무의 국민군은 대한국민의회 측 간부인 한군명(한창해)의 주선으로 자유시로 향했다.

‘대한독립군’의 양면 전략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한독립군’이 인민혁명군 제2군의 무장해제 요구에 대응하여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한독립군’ 북만주 통신부 소속의 이종실이 임시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보고서(1921.9.11.)에 잘 나타나 있다.

“아령 이만으로 간 뒤에 여러 군단이 합하여 전날 명의를 모다 작소하고 대한독립군이라 일홍하여 한 기관 아래에 지휘를 받게 되었더라. 이만은 일아(日俄) 사이에 이른바 완충의 땅이므로 적의 교섭이 심하여 다시 아령 흑하편으로 가게 됨에 전부가 다 그곳으로 가면 첫째 내외지에 교통이 편치 못하고 또는 모다 불셰비키됨이 우리 독립운동에 편치 못한 일이 많으며 겸하여 후방에 수습으로 말미암아 중요 임원 모모는 중령에 있게 되었나이다.”

‘대한독립군’이 양면 전략을 취한 이유는, 첫째로 집결지인 아무르주가 교통이 불편하고, 둘째로 불셰비키세력과 연합함으로써 인하여 (다양한 노선의) 독립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홍범도, 이청천, 이병채, 김승빈 등 전(前) 대한의용군 지도부와 북로 군정서의 서일과 박두희는 자유시행을, 김혁, 김좌진, 김규식, 이범석 등은 잔류를 선택하고 북만주로 되돌아갔다.

이 과정을 홍범도는 자신의 「이력서」에서 “그곳[이만]에서 380명 부대는 내 명의로써 유(留)하게 하고 220명을 내가 거느리고” “자유시에 당도하였다”고 회상했다. 대대 병력 약6,7백명 가운데 380명은 이만에 남고 220명은 자유시로 떠났다는 것이다. 이범석이 이끄는 학도대(4~50명)은 잔류했을 것이다. 이종실이 임시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보고서(1921.9.11)에 따르면, 1921년 상반기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의 병력은 2천 명이었고, 연해주 이만, 북만주 밀산과 묵릉에 5백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아무르주로 가지 않은 대한독립군(북로군정서) 군대는 연해주의 이만과 북만주의 밀산, 묵릉 등지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북로군정서측 지도자인 백순은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1921년 12월 29일 자)에서 1921년 12월 당시 이르쿠츠크에 체류하고 있던 이청천의 근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대한독립군 대대장 이청천이 서로군정서 군인 120명과 북로군정서 80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독립군 200여 명을 이끌고 러시아로 들어 갔다고 하여 홍범도의 회상과 일치한다

대한독립군의 양면 전략은 원동공화국 정부의 한인독립군에 대한 향후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한 매우 현실적 방안이었다. 대한독립군, 특히 자유시행에서 나누어진 북로군

정서 간부들간에 충분히 상호합의한 협의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서일의 사망 이후 뒤를 이은 ‘대한독립군’ 총재 대리 김혁이 참모장 이장녕은 연서(聯書)로 백순에게 보낸 편지(1921년 12월)에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본군 연대장 이청천의 보고도 저번에 알려드린 서로군정서의 보고와 똑같으니 과연 이는 실사(實事)입니다. 이청천은 지금 한군사관학교(韓軍士官學校)의 교장 겸 지휘관 인데 아라사[러시아]의 신당[불셰비키당]과 밀약이 성립되매 전령이 와서 보고한 것입니다.”

백순은 이청천이 임시정부측에도 보고하였을 것이라며 이승만에게 이청천의 보고 서한을 등사·첨부하여 보냈다. 백순은 이청천의 보고에 접하고 “본군[대한독립군]에 서신을 보내 장교 두 사람과 임원 중에서 러시아어에 익숙한 두 사람을 뽑아서 즉시 이르쿠츠크로 보내서 허실(虛實)을 상세히 정탐하여 연락을 취하라는 뜻을 재촉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의 이청천의 계획에 부응하여 ‘대한독립군’ 지휘부는 1922년 1월(음력) 1중대를 아무르강변의 흑하로 파견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소집령을 발표하여 4,5천 명을 농민 복장으로 음력 2월 내로 밀산에 집중하고 분대(分隊) [대오를 나누어] 각자의 담당구역에 보낼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혁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 신규식에게도 보냈다.(1921년 12월)

1921년 말 김혁, 이장녕, 백순 등 ‘대한독립군’(이전 북로군정서) 간부들은 이르쿠츠크에 머물고 있는 ‘대한독립군’ 대대장 이청천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러시아 혁명세력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한편, 이승만과 신규식 등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군자금을 요청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대한독립군’의 양면 전략, 특히 간도 독립군의 자유시행이 러시아, 중국(북만주와 상해), 미주 등 각 지역의 독립운동세력이 상호 연락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한독립군의 양면전략은 당시 간도 독립군의 자유시로의 이동은 항일무장운동세력의 커다란 구도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21년 12월 중순 이르쿠츠크에 머물고 있던 소대장급 이상 27명의 간도 독립군 장교들로부터 소비에트 정부 및

국제공산당과의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던 김동한은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유시로 이동해온 독립군 병력 2천 명은 만주의 독립군 대병력에 앞서 “선봉으로 아무르주에” 보내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이곳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독립군의 이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만주에 남아 있는 나머지 모든 독립군 부대원들도 신속히 아무르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들 ‘2천명’의 독립군이 북만주로부터 아무르주로 성공적으로 이동하여 통합과 지휘부의 완성, 러시아혁명세력의 후원 등 성공적인 소식이 있으면, 만주의 나머지 독립군들도 추후 이동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홍범도와 이청천 등은 ‘대한독립군’ 군대의 일부를 일종의 선발대(avant-garde)로 삼아 자유시 행을 선택했던 것이다. 앞서 소개한바 러시아에서의 이청천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김동한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시침변에 대하여 증언하고자 슈미야츠키와 이르쿠츠크파가 모스크바의 국제공산당에 파견한 허근과 이병채 역시 같은 맥락의 증언을 하였다. 즉, 자유시침변 이전까지 “그때까지 중국에 있던 나머지 우리 독립군의 대다수가 러시아 국경을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왔다. 자신의 대열에 수천의 전사를 보유한 많은 부대가 우리 상황을 알고서 아무르주에 오기를 원했으며, 우리는 정말로 그 소문에 기뻐했다. 러시아 형제들의 도움 아래 우리에게 독립군 운동을 전개할 광범한 가능성이 생겼다.”

인민혁명군의 무장해제 요구의 의미

인민혁명군 제2군 당국은 연해주 남쪽, 즉 백위파와 일본군 관할지역으로부터 “중립지대를 거쳤거나” “중국 영토로부터 왔거나” “제2아무르군 관할지역에 온 모든 한인부대에 대한 즉각적이며 완벽한 무장해제를 명령하였고, 경우에 따라 무력이라는 가장 단호한 수단도 동원가능하”다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구역책임자들은 정치적 이민자로서 갖는 일반권리(자유시민의 완전한 권리를 향유하게 되는)에 의거하여 무장해제된 한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거주지로 이동시키기 위한 차량이나 마차들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러시아 인민혁명군 제2군측의 무장해제 요구는 일본군이 연해주 남부에 엄연히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조치

였다. 그렇다고 인민혁명군의 무장해제 요구에 대하여 한국 독립군이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이었다고 추정하는 것 역시 근거가 약하다. 당시 무장해제를 수행했던 총군부(의군부) 소속 병사였던 김재규의 회상에 따르면, 당시 의군부 지도자인 허근(허재옥, 허영장)이 설명하기를, “낡은 군기[軍器] 대신에 새 군기를 받게 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김재규 역시 “우리는 원동공화국은 우리를 동정하는 국가이고 공동적 원수인 일본 군벌을 대항하는 데는 동일한 전초에 서 있는 우리 독립군에 전우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별말 없이 무기를 벗어 놓았다”고 회상했던 것이다.(김재규, 「의군부에 대한 회상」(1958년 2월 15일 자))

홍범도는 「홍범도 일지」에서 당시 ‘대한독립군’측이 인민혁명군 제2군에 넘긴 총기는 일본식총 707정, 러시아식 총 4개, 탄환 4만 7천개, 폭탄 2,804개, 나팔 6개, 단총 40개였다고 회상했다. 총기수 711정은 군인수가 7백이었다는 「이력서」의 기술과 부합한다.

당시의 간도 독립군 지도자들은 개별적인 자유시 행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혁명 세력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만에서 자유시로 가지 않고 북만주로 귀환한 대한독립군의 북만주 통신부 부원인 이종실이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러시아혁명세력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령 자유시에 있는 2천에 군대는 입고 먹는 것을 모다 아인[俄人.러시아인]이 공급하오니 비록 나라이 다르며 인종이 각빛이나[피부 색깔이 다르나] 이와 같이 보호하여 줌이 또한 감사한 일이오며 아직까지는 별일없이 지내나이다.

당시의 간도독립군이 러시아혁명세력에 대한 지원을 기대한 점을 공유하고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만주 밀산에서 연해주 이만으로 건너간 간도 독립군의 무장해제와 관련하여, 양면전략에 따른 간도 독립군 지도자들의 자유시행 여부를 ‘친공’과 ‘반공’이라든가 ‘공산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라는 이념적 대립으로 가르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한 역사학자의 홍범도를 위한 '실증적 변명'

-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편집위원회 특강 후기 -



김 경 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편집위원/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

지난 8월 20일 경기도 광주 퇴촌의 무돌국제한국학연구소에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편집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열렸다. 강사는 홍범도아카데미 반병률 원장(무돌국제한국학연구소 소장·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으로, 지난 2월 반병률 원장이 『역사비평』 제146호에 기고한 「홍범도를 위한 실증적 변명」에 대한 해설 강의로 진행됐다.

논쟁의 시작

먼저 반병률 원장은 자신이 해당 논문을 기고한 계기에 대해 설명했다. 시작은 작년 12월 『역사비평』 제145호에 수록된 임경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홍범도의 독립 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해당 글에서 임경석 교수는 윤석열 정권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홍범도 흉상 철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몇 가지 이유들(홍범도의 자유시 참변 가담설·소련공산당 가입 문제)에 대해 역사학자로서 정면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 당시 유혈 내분

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문제는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입당과 관련한 해석이었다.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를 꼬투리 삼아 대한민국 호국의 간성을 육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 ‘빨갱이’ 홍범도의 동상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병률 원장은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입당은 ‘공산주의자’로서의 뚜렷한 신념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소련에 거주하는 인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가입했던 ‘관행’의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자신을 따라 소련에 정착한 가족과 부하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연금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집단농장(알찌리) 운영을 위해 행정당국의 지원을 받으려면 공산당원 자격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경석 교수는 이러한 반병률 원장의 주장을 ‘입당 방편설’이라 하여 “냉전과 분단 속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에

찌든, 후대의 평가 기준이 소급된 혐의가 느껴진다”고 비판한 것이다.

반병률 원장이 답하다

반병률 원장의 「홍범도를 위한 실증적 변명」은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호 『역사비평』에 게재됨으로써 임경석 교수의 비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모양새가 됐다. 우선 반병률 원장 역시 자유시 참변과 관련하여 홍범도 장군에게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 임경석 교수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반병률 원장은 1921년 3월초, 간도 지역 독립군 부대(대한독립군) 중 홍범도를 비롯한 前 대한의용군 지도부와 서일 등 북로군정서의 일부 세력은 러시아로 넘어가고,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다른 한 축은 중국으로 돌아간 데 대해서도 흥미로운 주장을 내놔다. 독립군 부대들의 이중 행보는 한인 무장부대에 대한 원동공화국의 방침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간도 지역 독립군 지도자들이 취한 ‘양면전략’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즉 홍범도 등이 이끄는 일부 독립군 부대가 먼저 자유시로 건너간 뒤 상황이 좋다고 판단되면, 중국에 있던 나머지 부대들이 합류하기로 상호 합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반병률 원장은 “양면전략에 따른 간도 독립군 지도자들의 자유시행 여부를 ‘친공’과 ‘반공’이라든가

‘공산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라는 이념적 대립으로 가르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임경석 교수가 비판한 입당방편설에 대한 반병률 원장의 입장은 무엇일까. 반병률 원장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이 공산주의 혁명가로서의 투철한 신념에 입각해 이뤄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홍범도의 생애와 사상을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반병률 원장은 소련 사회의 특징을 먼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반병률 원장에 따르면 초기 러시아공산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의 전위(아방가르드)로서의 전위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체, 흔들림 없는 철의 규율로 이념과 조직을 수호할 수 있는 자격과 신념이 있는 이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소련공산당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통치정당으로서의 대중정당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즉 일정한 자격이 있고 큰 하자가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정당이 된 것이다. 1927년 홍범도 장군이 가입했던 소련공산당 역시 후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소련 공산당 가입 후 중요한 직책을 맡은 바 없이 평당원으로 일생을 마쳤다. 반병률 원장은 “홍범도가 공산주의 혁명에



현신할 수 있는 직업적 공산주의자가 되고자 했다면, 1927년 이전에 조직된 한인사회당·고려공산당·조선공산당 등에는 왜 가입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반병률 원장은 “한쪽에서는 홍범도를 뺏속까지 공산주의자니 불세비키니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혁명가라고 하는데, 정형(定型)의 틀에 홍범도를 가둬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민중적 삶이 체질화된 홍범도라는 인물을 이해할 수 없기에 구체적 사실에 입각한 해석과 평가를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홍범도의 올바른 모습, 시민들에게 알려야

2시간으로 예정됐던 강의는 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을 꼭 채운 뒤에야 마무리됐다. 쉬는 시간도 없이 진행된 마라톤 특강이었지만, 참석자들은 중간중간 반병률 원장에게 질문을 던지며 열정적으로 청강에 임했다. 특강 전 참석자들에게는 반병률 원장의 논문을 숙독하고 오라는 과제가 주어진 바 있다. 참석자들은 논문을 읽으며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비로소 해소된 듯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이날 특강이 끝난 뒤 정우기 편집위원은 “실증적 차원에서 홍범도 장군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그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필자 역시 독립운동사 연구자로서 임경석 교수와 반병률 원장의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본 바 있다. 임경석 교수가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필자 역시 공감한다. 홍범도 장군의 소련공산당 가입이 신념에 입각하여 이뤄진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홍범도 장군에게서 ‘의도적으로’ 좌파적 이념의 색채를 거둬

내리는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반병률 원장이 내놓은 주장의 핵심은 홍범도 장군의 사상을 실증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범도 장군이 과연 공산주의에 대해 얼마나 투철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있었는가’라는 문제는 인간 홍범도의 사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반병률 원장은 한평생 홍범도를 연구한 역사학자로서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것이라 본다. 이를 두고 반공 이데올로기에 찌든 분석이라는 비판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생각이다.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정권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로 촉발된 역사전쟁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학계에서 홍범도 장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임경석 교수와 반병률 원장의 논쟁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 홍범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수준 높은 논쟁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필자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제기했던 홍범도 장군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은 논파되어 생명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홍범도 장군의 삶과 사상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일이다. “홍범도 논란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유시 참변이 어땠고 소련공산당이 어땠고 한마디쯤은 거들게 됐다”는 우스개 소리처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범도 장군의 진면목을 깨닫는다면, 윤석열 정권의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 역시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를 위해 필자 역시 한 사람의 역사학도로서 힘을 보태야겠노라 다짐해 본다.



고려인 동포 소식

※ 홍범도 장군이 국내 활동이 여의치 않아 1908년 만주를 거쳐 연해주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여 이어간 삶 속에는 함께 했던 고려인이 있다. 고려인은 우리 한민족이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와 단절되어 있다 90년대가 되어서야 교류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와 정착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임에도 아직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대한고려인협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 동포와의 교류사업에 힘을 쏟을 것이며, 앞으로 소식지를 통해 고려인 동포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고려인협회 소개 및 인사말



정영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대한고려인협회 회장)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님과 회원 여러분께,

우리는 홍범도 장군과 그의 동지들을 기억함으로써 고려인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기여한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고려인 동포 사회가 이 나라와 맺고 있는 깊은 역사적 연대를 떠올립니다. 오늘날 이러한 영웅들의 후손과 160년 전 러시아 땅으로 이주한 고려인들이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 한국의 문화와 국민과의 유대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환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발전된 시민 제도를 갖춘 사회와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지만,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동등한 권리의 부재, 그리고 때로는 사회의 관심 부족 등 여러 제약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인이 한국의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중 다수는 여전히 다른 동포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고려인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당국의 관심 부족과 투표권의 부재는 한국 내 동포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서 여전히 우리가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CIS 고려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완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려인 공동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고려인이 한국의 역사 및 문화 유산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대한고려인협회는 고려인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구소련 출신 고려인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출신국에서는 민주적 가치 실현의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종종 시민권 제도가 부재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동포로서의 동등한 지위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법을 배우며, 한국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차세대의 고려인들이 한국을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자녀들이 신뢰와 복지를 누리며 성장할 수 있는 조국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변화의 과정이 좀 더 속도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지원과 연대에 감사드리며, 모두를 존중하는 원칙 위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한고려인협회 정영순 회장

대한고려인협회의 주요활동

1 고려인의 권리보호 및 긍정적 이미지 형성

대한고려인협회는 한국에서 고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법적 지위 및 사회적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주요목표는 고려인과 그 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통합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 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차별을 방지하고, 고려인 자녀와 미래세대가 양질의 교육과 발전전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개인 잠재력의 실현

협회는 교육이니셔티브와 전문프로그램을 통해 고려인들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여건조성, 자질 향상 과정 조직 및 전문적 및 개인적 자질개발을 위한 세미나 개최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고려인들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5 젊은 세대교육

협회는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문화적 가치를 전수하기 위한 청년프로그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젊은 고려인 사람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키우며, 잠재력을 개발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문화행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방향들은 대한 고려인협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토대가 되며, 한국에서 고려인들의 사회적, 문화적 및 직업적 통합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상담 및 지원

협회는 지역지부를 통해 고려인 사회구성원들의 한국 생활과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협회는 특히 노동고용문제에 주목하여 지방 정부 및 비정부기구의 지원을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시장에 대한 협회회원들의 접근을 수월하게 하고 직업기술을 향상시켜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 및 직업통합을 촉진하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4 활발한 상호작용 및 결속력 강화

협회는 한국내외의 고려인간의 연대를 강화하여 강력하고 상호지원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문화교류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행사를 주최하고, 또한 다른 한국계 디아스포라들과 경험과 자원을 교환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6 지역단체들과의 협력

협회는 지역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회원들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지역 NGO와의 공동프로젝트, 공공 캠페인 참여, 그리고 지역내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들을 포함 하게 됩니다.

역사캠프 후기



대한고려인협회 교육·문화·스포츠위원회



대한고려인협회는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및 대전시 중구청과 함께 2024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대전에서 청소년과 성인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뿌리 찾기'라는 이름의 역사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90여 명의 고려인들이 자신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대전에 모였습니다.

개막식에는 오광영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와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참석해 따뜻한 환영사를 전하며 신뢰와

진솔함이 가득한 분위기를 조성, 참가자들이 자신의 역사적 유산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역사 전문가인 송잔나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 교수와 비뎀 아쿨렌코 극동연방대학교 부교수가 이틀간 고려인의 이주사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통해 참가자들은 왜 그들의 조상이 한국을 떠나 극동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이주지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 어떻게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적응해 나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연은 청소년부터 성인

까지 모든 참가자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과거 조상들이 겪었던 역경이 현재에도 깊은 공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역사적 고향으로 돌아온 후손들이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국권을 되찾으려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투지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안중근 의사, 최재형 선생 등 많은 인물들이 자유의 상징이 되어 한국 독립을 위해 큰 기여를 했음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캠프는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 청소년은 역사학자가 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성인들은 이러한 만남을 더 많이 개최해달라고 대한고려인협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캠프에 참여함으로써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와 정체성을 느끼고,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고려인들은 대전 중구 뿌리공원 에서 열린 축제에도 참가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성씨별 대표 들이 특별 행진을 하는데, 올해에는 고려인들도 이 행렬에 함께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성씨들이 모인 이 행렬에 함께하는 것은 모든 한국인들의 단합을 상징하는 것이며, 한반도를 넘어 어디에 살든 모든 한국인들이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는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닌 진정한 뿌리 찾기이고, 19세기와 20세기 격동기에 역사 속에서 분리되었던 한국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참가자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역사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경주의 노인 예술단 '나스트로예니에'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예술단 단원들의 나이를 모두 합치면 거의 950세에 달합니다. 그들의 에너지와 낙천적인 태도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번 대전 역사 캠프는 세대를 잇는 만남의 장이자 자신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자리였습니다. 대한 고려인협회는 이번 캠프가 고려인들이 결속하고 현재의 자신을 재발견하며, 후손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1

망우 역사 문화 공원 탐방



8월 3일, 박홍근 신임 이사장은 중랑구에 위치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기념사업회 이사들을 초청하여 독립운동 위인들의 묘역을 찾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 첫 공식 일정이었다. 토요일 무덥고 뜨거운 날에도 많은 이사들이 참석하여 신임 이사장과의 출발을 독립운동의 역사와 함께 하였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2

신임 이사 선임장 수여



8월 12일 임시총회에서 신임 이사에게 선임장을 수여하였다.

<신임 이사>

장항규(전주시 광복회 지회장), 유경애(로컬푸드 톡톡 대표), 김대식(전 카자흐스탄 대사),

김기수(재)농업생명재단 이사장, 김광중(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서진웅(전 국무총리 정무협력비서관)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3

이사장 이취임식



8월 12일, 우원식 2대 이사장(현 국회의장) 이임식과 박홍근 3대 이사장(현 국회의원) 취임식이 열렸다.

2005년 이종찬 초대 이사장(현 광복회 회장)에 의해 설립된 기념사업회는 학술회의를 통한 홍범도 장군의 독립전쟁 역사 정리의 틀을 마련하였고, 고려극장 등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와의 교류의 장을 열었다.

2018년 우원식 2대 이사장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되어 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시고 왔고, 이후 홍범도 장군의 독립전쟁의 업적과 정신을 역사왜곡으로 폄훼하는 친일세력과의 싸움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독립전쟁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음을 국민에게 알렸다.

박홍근 신임 이사장은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별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민주당에서 강제동원 해법 등 대일 굴욕외교 대응을 통한 역사정의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왔고 애국지사가 안장된 망우역사문화 공원의 조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노력해온 활동을 바탕으로,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데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그는 취임식 자리에서 퍼주기식 한일 외교와 뉴라이트 인사의 연이은 역사기관장 임명으로 역사 퇴행의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홍범도 장군과 독립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순국선열을 기리고 국군과 육군사관학교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4

광복 79주년 및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3주년 기념식



2024년 8월은 가슴이 답답했다.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것이다. '건국절'을 운운하는 정부의 경축식에 어찌 동참하겠는가? 8월 14일, 우리 기념사업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그리고 대전 국회의원, 유성구청장, 중구청장님과 함께 광복절과 홍범도 장군의 귀환 3주년을 기념하였다. 2025년 광복 80주년에는 제발 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간절히 바란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5

이종찬 광복회장 예방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제 강점에 대한 우리 독립의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가 거리낌없이 이루어지는 작금의 세태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있는 분이 이종찬 광복회장입니다. 우리 기념사업회는 9월 2일 박홍근 신임이사장과 이사들이 이종찬 회장을 예방하여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역사왜곡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역사왜곡을 반드시 무산시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함께 지켜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6

우즈베키스탄 고려가무단 초청 공연



2023년 “고려인 문화 교육·전수 사업”으로 우리 기념사업회의 이경철 이사(송파산대놀이 전문가)가 11월~12월 두 달 동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고려인 동포로 이루어진 “고려가무단”을 상대로 한국의 전통춤을 교육하고 왔다.

마침 2024년 올해가 고려인 동포(한인)가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지 1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이를 기념하여 9월 3일에 노원구의회, 노원놀이마당, 노원문화재단과 함께 “고려가무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였다.

잔인한 역사의 흐름에서 어쩔 수 없이 흘러흘러 서로 멀어졌지만, 과거에 대한 지식 부족과 오해를 극복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의 고려인 동포를 인식하니, 더 없는 존경과 죄송함으로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7

추석 성묘



9월 18일, 한동건 사무총장과 기념사업회 대전화원들이 국립대전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추석 성묘를 드렸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8

전주 지역 이사 모임



10월 3일, 한종관 이사(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초청으로 서울의 이사와 전북의 이사들이 전주에 모여 주요 유적지를 둘러보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유희태 이사(전북 완주 군수/일문구 의사 선양 사업회 회장)가 홍범도 장군의 홍상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대전 못지 않은 지역 모임이 전주에서도 만들어져 홍범도 장군의 불굴의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하기를 기대한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09

홍범도 장군 묘비명 전달식



지난 10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고려인 원로 김 레프 니콜라예비치(1946) 선생이 30여 년간 보관해오던 홍 장군 묘비명을 기증하였고, 이를 10월 21일에 의장실에서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이사장은 “묘비가 우리 앞에 나타난 의미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독립전쟁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폄훼하려는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국가적인 나쁜 시도들에 대해,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엄중하게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번에 돌아온 묘비는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다. 묘비 뒷부분이 온전한 형태로 우리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념사업회가 앞장설테니, 국가 보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고 촉구하였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10

한창걸, 한성걸 지사 합동 위패 봉안식

우리 기념사업회의 박드미트리 카자흐스탄 지사장의 외증조부이자 우즈베키스탄에서 인터넷 사이트 'koryo saram site'를 운영하고 있는 한 블라디슬라브 선생의 큰할아버지, 할아버지이신 한창걸, 한성걸 지사의 위패 봉안식이 10월 7일 국가보훈부 주최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사진	성명(훈격)	처형지	유족현황	주요 공적사항
	한창걸 (‘09년 애족장) *兄	러시아 연해주 하바롭스크 (총살)	한 블라디슬라브 빅토르비치 (손자) *우즈베키스탄 거주	-1919년, 수청군대 조직, 일본군과 전투 -1921.1월, 전한임시군사위원회 군정위원 -1922.1월, 혈성단 부단장 -1922.4월, 한인의용대 지휘 -1922.9월, 연해주 한인부대 위원으로 일본군과 전투
	한성걸 (‘18년 건국포장) *弟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총살)		-1919.12월, 블라디보스톡에서 봉기에 참여, 일본 헌병대 감옥 수감 -1920년, 일본군 체포 3일간 구류 -이후 한창걸 부대 참가 항일 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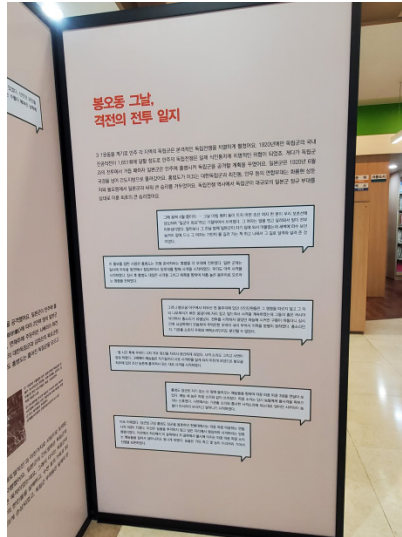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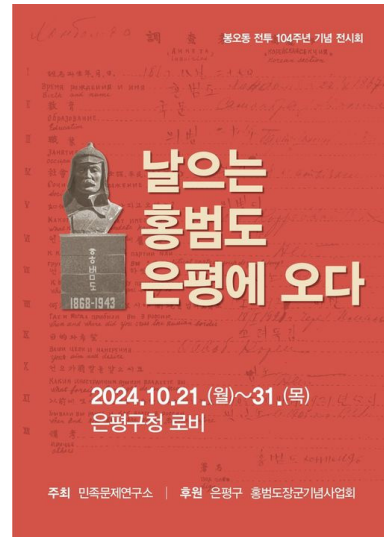
한창걸·성걸 지사는 형제 사이로 각각 1938년 2월 러시아 하바롭스크, 1938년 5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사망했다.

위패 합동 봉안은 보훈부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의 실태 조사를 진행한 다음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 추진했다.

유족들이 직접 위패 봉안식에 참가하지 못해, 기념사업회에서 반병률 교수, 한동건 사무총장, 김은정 사무국장이 참가하여 해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함께 했다.

기념사업회 소식/행사 11

‘날으는 홍범도 은평에 오다’ 전시회



작년 12월 ‘고려극장 수위 홍범도 인사동에 오다!’ 전시회에서 고려극장과 고려일보 기록을 통한 홍범도 장군 전시회가 열렸고, 그 뒤를 이어 올해 3월~5월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홍범도와 Хон Бомдо’ 전시회를 통해서도 북간도, 연해주, 중앙아시아, 한국에 남겨진 기록물들을 통하여 홍범도 장군의 발자취를 함께 걸었다. 6월 나주에서 열린 제4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에서도 작은 전시를 통해 홍범도 장군의 불굴의 독립 정신을 알렸다.

4번째 전시회로 10월 21~31일에 ‘날으는 홍범도 은평에 오다’ 전시회가 민족문제연구소, 은평구와 함께 은평구청 로비에서 열렸다.

회원 동정



박홍근 이사장

박홍근 이사장은 지난 10월 25일 <순국 81주기 추모식 및 청산리전투 전승 104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독립운동단체 관계자와 많은 시민들과 함께 정신계승과 역사전쟁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특히 올해는 홍범도 장군의 사라진 묘비를 되찾아 추모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또한 10월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와 은평구가 후원한 <‘날으는 홍범도 은평에 오다’ 전시회>에 참석하여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전시를 관람했다.

11월에는 광복회와 함께 <육사 내 독립영웅 홍상 재배치계획 전면 백지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부승찬·추미애·정성호·이기현·조국 의원과 함께 <국군조직법 개정 입법공청회>를 공동주최하여 항일의병, 독립군과 광복군에 뿌리를 둔 국군의 정체성과 역사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홍성종 이사

홍성종 이사(남양홍씨 남양군파 회장)는 1408년 고려의 외손으로 태어나 조선에서 과거에 급제 하였으나 갖은 핍박과 압력으로 웅지를 펴지 못하신 우국제 홍경손 선생의 문집을 한글로 번역하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고 후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황구 이사

이황구 이사(지정 노무법인 대표)의 큰딸이 11월 10일 남산예술원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김선엽 이사

우리 기념사업회 막내 김선엽 이사(오산대학교 보컬K-POP콘텐츠학과 겸임교수)가 10월 17일에 예쁜 공주님의 아빠가 되었다.

오광영 이사

오광영 이사(대전 중구청 정책보좌관)와 기념사업회 대전모임 회원들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크즐오르다를 방문하여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동포의 역사적 장소들을 탐방하였다.

